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연구

손 승 회[†]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에게 의식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비개방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 개인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들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들을 각각 추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 중, 상급 경력의 상담수련생 총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접을 실시하여, 비개방 내용 307개 반응, 이유 349개 반응, 방식 319개 반응을 추출하였으며, 3명의 평정팀과 2명의 감수자 및 최종 감수자의 합의에 의해 추출된 반응들을 정리 및 분석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52개, 이유 47개, 방식 19개가 추출되었으며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들은 모두 각각 3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담수련생들은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에 대한 감정이나 반응, 그리고 수퍼비전 경험에 대해 가장 개방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제시하며,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 수퍼비전, 수퍼비전 과정, 상담과정, 상담자 자신, 내담자에 대한 지각 등 전반적 영역들이 탐색되고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상담수련생들의 비개방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 수퍼바이저에 대한 상하관계 의식이나 갈등의 예상이 우리나라 상담수련생들의 비개방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비개방 방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다양한 방식 중 피면접자 모두 그리고 전체 반응의 반 이상이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은폐'의 방식을 채택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상담수련생에게 상담자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퍼바이저에게는 상담수련생에 대한 이해와 수퍼비전의 효율적 운영, 개입 전략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수퍼비전, 상담자 교육, 상담수련생, 수퍼바이저, 개방, 비개방

손승회는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손 승 회,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전화 : 02-820-6368, E-mail : therapy_s@yahoo.co.kr

상담 슈퍼비전은 전문적인 상담자 교육에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로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상담자 기술훈련과 유능감 발달, 상담 전문성 평가 및 내담자 보호라는 목적 하에 상담수련생들은 상담 활동과 상담자로서 성장을 위해 슈퍼비전을 받으며 이를 통해 상담과 슈퍼비전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검증하게 된다.

대부분의 슈퍼비전 모델들은 상담수련생은 자신과 내담자, 상담과정에서의 활동, 슈퍼비전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들을 그들의 슈퍼바이저에게 개방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Bernard & Goodyear, 1992; Bordin, 1983;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Stoltenberg, 1981; Stoltenberg & Delworth, 1987). 하지만 상담수련생들은 슈퍼비전에서 어떤 정보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을지, 그리고 특별한 주제에 대한 개방의 정도를 선택한다(Ladany, Hill, Corbett, & Nutt, 1996; Yourman & Farber, 1996).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는 상담수련생이 말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을 도와줄 수 없다. 따라서 상담수련생의 개방은 상담에서의 실수를 예방함으로써 내담자를 보호하므로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슈퍼비전 과정을 촉진하고 상담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반대로 비개방은 내담자 보호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슈퍼비전의 풍부함과 깊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슈퍼비전 과정과 그 효율성을 방해하며 결국 유능한 상담자로서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Betcher & Zinberg, 1988; Ladany 등 1996; Yerushalmi, 1992; Yourman & Farber, 1996).

상담수련생은 슈퍼비전에서 상담회기의 복잡한 과정들을 슈퍼바이저에게 전달하는 어려움

로 인해 비개방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는 좀 더 의식적인 과정이 작용한다(Armeniox, 2000; Jamon, 1990; Ladany 등 1996; Worthington, 1984; Yerushalmi, 1992). 본 연구에서는 슈퍼비전과 관련되고 영향을 주는 비개방을 연구하는 것이 슈퍼비전에 주는 실제적인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담자-상담수련생-슈퍼바이저의 삼자 관계에서 상담 활동 및 슈퍼비전에 관련되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식적인 비개방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1950년대 중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자기개방(self-disclosure)은 인간중심 심리학자인 Jourard와 Lasakow(1959)에 의해 최초로 심리학적 용어로 개념화되었다. Jourard(1964)는 자기개방을 건강한 성격과 대인관계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인간중심접근의 진솔성, 일치성의 특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즉 자신의 참 자기(real selves)를 타인들에게 의사소통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건강한 인간관계와 관련된 대인관계 기술로 정의하였다(Armeniox, 2000). Watkins(1990)는 자기개방을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진술을 타인에게 알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Rosenfeld, Civikly와 Herron(1979)는 상대방이 다른 근거에 의해서는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자의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개방은 상담과 심리치료 문헌들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내담자의 개방은 상담 성과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제시되었다(Gendlin, Jenny, & Shlien, 1960; Hill et al, 1993).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고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개방은 필수적이다(Patterson, 1985). 하지만 Hill 등(1993)과 Kelly (1998)의 연구 결과 각각 46%, 40.5%의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 개방하지 않은 부분을 속으로 은

폐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상담에서 내담자가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 비개방은 상담 과정 및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내담자의 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담에서 자기개방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상담수퍼비전 연구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퍼비전 연구의 개념, 가정들이 대부분 상담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수퍼비전에서의 개방은 내담자-상담수련생-수퍼바이저 삼자 관계에서 상담수련생이 이전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상담활동과 수퍼비전에 관련된 사항들 즉 자기 자신, 내담자, 상담과정, 그리고 수퍼비전 과정,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수퍼바이저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서 공유하도록 드러내는 것을 포함한다. 수퍼비전에서 개방은 Ladany 등(1996), Ladany와 Lehrman-Waterman(1999), Ladany와 Melincoff(1999), Yourman과 Farber(1996), Armeniox(2000)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수퍼비전에서 개방 및 비개방에 대한 문헌들은 제한되지만 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상담수련생에게 수퍼비전의 이득을 극대화해 준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즉 수퍼비전의 효율성은 상담수련생이 자신이나 내담자, 상담과정, 수퍼비전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고자 하는 의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Bernard & Goodyear, 1992; Bordin, 1983; Hess, 1980).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개방, 비개방에 대한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 탐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험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Hess, 1999). 문헌연구들을 살펴보면 Yerushalmi(1992)는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은폐 이유와 유형에 대하여, Glickauf-Hughes(1994)는 발달적 모델과 관련하여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저항을 유발하는 특성적 주제들을 각각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Ladany 등(1996)은 사고기록

(thought-listing) 방법을 사용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상담수련생의 97%가 수퍼바이저에게 정보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Yourman과 Farber(1996)의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39.8%가 상담에서의 실수를 수퍼바이저에게 개방하지 않고, 59.1%는 수퍼바이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개방하지 않으며, 47.3%는 수퍼바이저가 듣고자 하는 정보들을 보고한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Ladany 등(1996)의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을 함으로써 이후 연구들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갖지만, 심층면접이 아닌 사고기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신의 비개방에 대해 알아차려 보고하는 데 제한점을 가지므로 비개방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Yourman과 Farber(1996), Yourman(2000)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양적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서구의 상담자들과 우리나라 상담자들의 인성적 특성이 다를 뿐 아니라 상담 실제 및 수퍼비전에 대한 상담자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경험과 비개방에 미치는 영향들도 다를 것이라 가정할 수 있으며, 서구의 결과를 국내 상담자 교육에 적용시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Shim(2002)은 한국의 상담수련생들은 서구의 상담수련생과 비교하여 수퍼바이저와 개인적으로 직면하였을 때 좀 더 불안해하여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의 상담수련생들은 수퍼바이저와 같은 권위적인 대상에게 기꺼이 자신의 내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을 보이며 권위자에게 의존이나 복종의 방식을 취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퍼비전 상황을 고려한 상담수련생의 내적 경험에 대한 연구 특히 상담수련생의 개방과 비개방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수퍼비전 중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 방식인 개인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의식적인 비개방에 초점을 둔 포괄적인 탐색, 특히 그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해주는 탐색적,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이 수퍼바이저에게 의식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비개방에 대해 탐색하는 데 있다. 이에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바이저에게 '어떤 내용들을 개방하지 않는가',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개방하는 않는 방식은 어떠한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사용한 질적 연구방법이 더 잘 부합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생각, 감정, 반응 등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미리 예상되는 전제로부터 질문을 하는 방법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경험적 편견을 감소시키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Hill 등, 1997; Holloway, 198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수련생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면접을 활용하여 추출된 반응들을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분류하고자 한다.

수퍼비전에서 비개방에 대한 상담수련생의 인식은 자신의 성장과 과제에 대한 점검을 위해, 내담자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필요하며, 수퍼바이저에게 상담수련생의 내적 경험에 대한 이해와 상담자 발달을 저해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퍼비전의 효율적인 개입과 방향 제시, 상담자의 성장 및 상담자 교육이라는 측면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개방하지 않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개방하지 않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개방하지 않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방 법

참여자

면접과정 참여자

우리나라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비개방하는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인수퍼비전을 적어도 5회 이상 경험한 상담수련생으로,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하여 경력별 각 6명씩 총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급 수련생은 상담경력 4학기 이하이고 수퍼비전을 적어도 5회 이상 15회 미만 경험한 자, 중급 수련생은 상담경력이 5~9학기이고 수퍼비전을 적어도 15회기 이상 30회기 미만 경험한 자, 상급 수련생은 상담경력이 10학기 이상이며 수퍼비전 회기가 30회기 이상이고 수퍼바이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또한 수퍼바이저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상담수련생들로 하여금 면접에서 보고하는 수퍼바이저는 상담심리전문가 4년 이상인 자에게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면접 내용 평정자 및 감수자

면접 내용의 평정을 위해 본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평정자와 2명의 감수자, 1명의 최종감수자

를 두었다. 그리고 평정자 3명과 감수자 3명 모두 상담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절차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 추출을 위한 면접 실시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 초급, 중급, 상급 경력의 상담수련생 총 18명에게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에게 이야기하기 불편하여 털어놓지 않게 되는 생각, 감정, 반응, 경험들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각각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비개방하였는지?’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여 비개방 요소에 대한 반구조화 면접을 본 연구자가 수행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다.

면접 진행에 있어 수퍼비전에서 ‘비개방’ 내용에 대해 피면접자들이 생소하고 자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되었으므로, 비개방 내용의 큰 범주들을 제시함으로써 피면접자의 생각을 자극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주들은 비개방에 관련된 문헌들을 개관한 후 합의팀의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상담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담전문가 2인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 내용, 면접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상담수련생 3명(초급 1명, 중급 1명, 상급 1명)에게 예비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준비를 거친 후 본 면접 실시에 앞서 피면접자들에게 연구 참가 및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수행하였다. 면접시간은 피면접자에 따라 50분에서 1시간 40분까지 소요되었다.

추출된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의 정리

면접이 완료된 후 면접 내용을 그대로 축어록으로 작성하고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을 피면접자의 표현 그대로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추출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반응들은 내용 반응 총 307개, 이유 반응 총 349개, 방식 반응 총 319개였다. 추출된 반응들을 정리하여 내용, 이유 및 방식의 리스트로 만든 후, 세 개의 각각 리스트를 평정자인 상담전문가들에게 나누어주고 독립적으로 리스트에서 같은 내용들로 분류할 수 있는 것끼리 자료를 묶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평정자 전원이 모여 각각의 평정자가 묶은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자료 요약의 준거는 평정자 2인 이상이 일치한 내용(일치율 60% 이상)으로 하였고, 3명 모두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론을 거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은 총 52개, 비개방 이유는 총 47개, 비개방 방식은 총 19개로 정리되었으며, 그 표현은 평정자들의 추론을 배제하고 피면접자의 말에 충실하도록 하여 평정자들의 합의에 의해 다듬어졌다.

다음 단계로 감수자 2명에게 위에서 분류한 결과가 각각 적절하게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내용, 이유 및 방식 각각의 표현이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그 내용들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감수자들의 대안적 표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정자들은 감수자들의 지적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감수자들의 의견을 따라 수정하거나 평정자들의 결정을 유지하거나 하였다. 이후 마지막으로 최종 감수자에게 감수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상위 영역으로 분류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52개,

비개방 이유 47개, 비개방 방식 19개가 어떤 특성을 가진 내용인지 상위영역으로 분류하기 위해 평정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각각 독립적으로 비슷한 영역으로 분류하도록 한 다음 평정자 전원이 모여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비개방 내용에 대해서는 비개방 '내용'을 근거로 제작된 비개방수준 질문지 수거자료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내용, 이유, 방식 모두 각각 5개 상위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영역을 대표하는 포괄성이 있는 표현으로 합의과정을 거쳐 표현이 다듬어졌다.

분류된 영역에 대한 타당도 확인

비개방 내용, 이유, 방식이 각각 5개 영역으로 분류된 결과에 대해 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 대표성있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명명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타당성을 확인할 상담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해 눈덩이표집(snow 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전문가 3인이 선정되었는데(남 1, 여 2), 박사학위를 소지한 상담전문가이며 오랫동안 상담자 교육과 상담수퍼비전 연구 및 실제에 종사해 온 경력의 전문가들로서 본 연구의 분류를 확인하는데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선정된 3명의 전문가들은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의 영역들이 제대로 범주화되었는지, 영역을 대표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지적하였으며, 합의팀은 지적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여 합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결 과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분류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307개의 비개방 내용 반응들은 52개로 분류되었으며 표 1은 52개의 비개방 내용들을 5개 영역으로 분류할 때 각 영역의 특성과 해당되는 비개방 내용들을 제시한 것으로, 각 영역 내에서 제시된 순서는 반응 빈도가 많은 내용들부터 나열되었다. 추출된 비개방 내용 영역은 포함된 내용에 따라 '수퍼바이저 및 수퍼비전에 대한 반응',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수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의식', '상담진행 및 개입', '상담자-내담자 감정 및 개인적 이슈'의 5개 영역으로 명명되었다.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첫 번째 영역은 '수퍼바이저 및 수퍼비전에 대한 반응' 영역으로 모두 19개의 비개방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전체 반응의 32.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반응 수를 포함하였다. 이는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바이저와 수퍼비전에 대한 부정적 감정, 상충되는 의견 또는 의구심 등에 대해 가장 많이 개방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영역으로 모두 6개의 비개방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17.9%를 차지하였다. 영역 2에는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바이저의 개입이나 피드백에 대해 비난으로 느껴지는 등의 부정적 감정, 수퍼바이저의 견해에 대한 불일치에 대한 의견, 의구심, 혼란과 관련된 내용들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퍼바이저와 작업동맹 및 신뢰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세 번째 영역은 '수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의식' 영역으로 모두 3개의 비개방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8.5%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수퍼바이저의 평가를 의식하는 염려나 걱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들이 따로 분류되었는데, 서구의 외현적 평가와 상이한 성격이지만 내면적 평가에 대해 상담수련생들이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번째 영역은 ‘상담진행 및 개입’ 영역으로 모두 15개의 비개방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22.5%를 차지하였다. 슈퍼비전의 목적이 내담자 보호와 상담수련생의 기술 향상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슈퍼비전의 목적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역은 ‘상담자

내담자 감정 및 개인적 이슈’ 영역으로 모두 9개의 비개방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18.2%를 차지하였다. 영역 5는 상담 과정에서 인식되는 상담수련생 자신의 문제나 패턴 그리고 감정에 대한 자각이 전제되어야 개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수련생의 인식을 포함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표 1. 비개방 ‘내용’ 영역의 분류

영역	특성	비개방 내용 (총 52개)
영역 1: 수퍼바이저 및 수퍼비전에 대한 반응 (32.9%)	수퍼바이저와 수퍼비전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주로 부정적 감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바이저의 전문성에 대한 실망과 의구심 • 수퍼바이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 •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접근이 나와 맞지 않는 경우 • 내가 원하는 부분이 다뤄지지 않는 경우 • 수퍼바이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한 불편함 • 수퍼바이저의 일정·시간에 맞춰야하는 불편함 • 수퍼바이저와 이중관계나 사적 관계로 인한 불편함 • 수퍼비전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을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대한 불만족감 • 내가 원하는 수퍼비전 방식 • 수퍼바이저의 불성실에 대한 불쾌감 • 수퍼바이저의 외모, 버릇, 어투에 대한 거부감 • 수퍼바이저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 수퍼비전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 • 수퍼바이저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감정 • 수퍼바이저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라 여겨지는 부분 • 수퍼비전을 피하고 싶은 마음. • 원하는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수 없는 점 • 수퍼비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감정
영역 2: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17.9%)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이나 개입에 대한 의견이나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바이저와 견해가 다르거나, 의견에 수긍이 안 가는 경우 •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이 비난으로 느껴질 때 드는 부정적 감정 •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 • 수퍼바이저가 상담수련생의 전문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데 대한 서운함 • 수퍼바이저가 상담수련생 문제라고 돌릴 때 드는 불편한 마음 •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이 정리되지 않을 때의 혼란스러움

표 1. 계속

영역	특성	비개방 내용 (총 52개)
영역 3: 수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의식 (8.5%)	수퍼바이저의 평가를 의식하는 염려나 걱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로서 ‘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마음 • 수퍼바이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염려 • 수퍼바이저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반응을 내담자에게 한 경우
영역 4: 상담진행 및 개입 (22.5%)	상담에서 부적절 했다고 지각되는 개입 또는 상담 에서의 실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 문제과약과 상담진행에서 자신이 없는 부분 • 내담자 반응에 적절하게 초점을 못 맞춘 경우 • 내담자에게 공감이나 잘 안된 경우 • 상담자가 효과 없이 말을 반복하거나 교육, 설명하는 반응 • 상담자의 개입이 내담자 흐름보다 앞서나간 반응 • 수퍼비전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반복한 경우 • 내담자의 지각, 결석, 조기종결이 되는 경우 • 내담자를 좀 더 깊게 탐색하지 못한 경우 • 상담에서 적절한 반응을 놓쳤다고 생각되는 경우 • 내담자의 지각, 결석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 • 상담이 진척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 상담자의 자기개방이 적절했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 • 상담자가 상담약속을 미루거나 늦은 경우 • 내담자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되는 반응 • 상담자의 부적절한 비언어적 태도
영역 5: 상담자-내담자 감정 및 개인적 이슈 (18.2%)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 전이, 역전이 또는 상담자, 내담자의 사적인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개인의 문제가 건드려져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예를 들면 거부감이나 부담감 • 내담자에 대하여 상담수련생이 느끼는 매력이나 호감 • 상담이나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적 표현 • 상담자의 사적인 정보나 고민, 예를 들면 힘든 일, 가족사 •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 • 상담하기 귀찮고 싫은 마음 • 내담자와 동일시되는 감정 •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호감이나 매력을 갖는다고 여겨지는 경우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이유 분류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이유에 대한 349개 반응들은 47개, 그리고 총 5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추출된 비개방 이유 영역은 표 2와 같이 ‘수퍼비

전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예상’, ‘평가에 대한 염려’,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개방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상담자로서 부족감 인식’, ‘수퍼바이저의 의도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의 5개 영역으로 명명되었다.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이유 첫 번째 영역은 ‘수퍼비전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예상’ 영역으로 모두 10개의 비개방 이유를 포함하였으며, 전체 반응의 37.2%를 차지하였다. 이 중 ‘수퍼바이저와 관계의 갈등이 두려워서’,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수퍼비전 관계는 힘의 균형이 다른 상하관계이므로’는 비개방 전체 이유들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세 가지 이유들로서,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부정적 관계나 갈등에 대한 예상이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바이저와 관계에서 불안해하고 수퍼바이저를 의식하여 부정적 감정이나 상이한 의견 등을 개방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영역은 ‘평가에 대한 염려’ 영역으로 모두 12개의 이유를 포함하며, 전체 반응의 31.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 수퍼비전 평가의 역할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도 ‘평가에 대한 염려’는 역시 중요한 비개방 이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퍼바이저에게 능력있는 상담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창피하다는 인식 그리고 수치심이 개방

표 2. 비개방 ‘이유’ 영역의 분류

영역	특성	비개방 이유 (총 47개)
영역 1: 수퍼비전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예상 (37.2%)	수퍼바이저와 상하관계 의식 및 개방으로 인한 갈등,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바이저와 관계의 갈등이 두려워서 •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 수퍼비전 관계는 힘의 균형이 다른 상하관계이므로 • 부정적인 피드백은 하기 어려워서 •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이 기분 나빠서 • 수퍼바이저와 신뢰관계 형성이 약해서 • 수퍼바이저가 무섭고 불편해서 • 수퍼바이저를 거부하는 느낌을 줄 것 같아서 • 수퍼바이저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 수퍼바이저와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영역 2: 평가에 대한 염려 (31.2%)	수퍼바이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염려와 인정 욕구, 개방으로 인한 수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자질 있는 상담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 상담자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걱정되서 • 상담반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걱정되서 • 상담자로서 적절한 반응을 못했다는 것이 창피해서 • 상담자로서 자질/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걱정되서 • 사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 수퍼바이저가 상담자 문제라 할 것 같아서 • 사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서 • 내담자에게 호감, 매력을 갖는 것이 창피해서 •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창피해서 • 상담자의 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표 2. 계속

영역	특성	비개방 이유 (총 47개)
영역 3: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개방효과에 대한 의구심 (13.2%)	개방의 필요를 못 느끼거나 인식 부족 및 개방해도 소용없다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 얘기할 필요를 못 느껴서 • 상담이 아닌 슈퍼비전 시간이니까 • 인식을 못해서 •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 슈퍼바이저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 슈퍼바이저가 바빠서 어쩔 수 없으니까 • 슈퍼비전에서 다루어도 되는지 몰라서 • 이미 결정된 것을 번복하기 어려우니까 • 아부하는 것 같아서 • 내 감정을 하찮게 여겨서 •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 자격증을 따기 위해 그만둘 수 없으므로
영역 4: 상담자로서 부족감 인식 (11.5%)	상담자로서 부족감 또는 상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의 심리적 문제라는 생각에서 • 상담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 상담진행이 잘 안되는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아서 • 내담자에게 무성의한 것 같아서 • 상담자의 윤리를 의식해서 • 상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영역 5: 슈퍼바이저의 의도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 (6.9%)	슈퍼바이저의 유능성에 대한 신뢰 및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생각에 확신이 없어서 • 슈퍼바이저가 전문가니까 • 내 나름대로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 슈퍼바이저가 나를 위해서 해 주는 말이어서 • 슈퍼바이저의 특성이니까 •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영역은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개방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영역으로 모두 12개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13.2%를 차지하였다. 이는 개방해도 소용없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또는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는 요소가 비개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슈퍼비전 상황에서 슈퍼비전 방

식, 다루어질 내용, 슈퍼바이저와 수련생의 역할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미흡하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여진다. 네 번째 영역은 ‘상담자로서 부족감 인식’ 영역으로 7개 이유를 포함하였으며 전체 반응의 11.5%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상담자로서 부족감을 느끼거나 상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인식과 관련된 생각들이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역은 '수퍼바이저의 의도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 영역으로 모두 6개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6.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퍼바이저의 의도나 유능성, 전문성에 대한 신뢰 및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부족이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 영향을 주는 이유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방식 분류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방식 317개의 반응들은 19개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은 표 3과 같이 '은폐', '축소', '왜곡', '우회', '회피'의

총 5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방식의 각 영역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영역은 '은폐'로 모두 4개의 비개방 방식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68.8%를 차지하였다. 이는 어떤 내용에 대해 생략하거나 숨기거나 빼거나 감추는 등 표현을 완전히 안하는 양식이 가장 흔한 일반화된 비개방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영역은 '축소'로 모두 4개의 방식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11.4%를 차지하였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 그 정도나 강도를 줄여서 표현하는 양식도 흔히 사용되는 비개방 방식으로 상담수련생이 언어 또는 축어록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정도, 감정의 강도 등에

표 3. 비개방 '방식' 영역의 분류

영역	특성	비개방 방식 (총 19개)
영역 1: 은폐 (68.8%)	어떤 내용에 대해 생략, 숨기거나 빼거나 감추는 등 표현을 완전히 안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얘기를 안 하거나 생략함 • 적절치 않은 부분을 빼버림 • 수궁하는 척 하거나 수궁함 •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수퍼바이저에게 물음
영역 2: 축소 (11.4%)	어떤 내용에 대해 그 정도나 강도를 줄여서 표현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정도를 축소하여 표현 • 감정 없이 사건·사실 중심으로 축소하여 표현 • 감정 수위를 조절함 • 축어록은 대강 기록하고 얘기는 안함
영역 3: 왜곡 (8.8%)	어떤 내용에 대해 조작하거나 축어록을 수정하여 표현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하게 보이도록 축어록을 조작함 •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넘어감 • 거짓으로 얘기함 •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표현
영역 4: 우회 (6.9%)	어떤 내용에 대해 우회적,수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얘기하지 않고, 수퍼바이저가 물어보면 얘기함 • 우회적으로 표현 • 비언어적/수동공격적 표현
영역 5: 회피 (4.1%)	어떤 내용에 대해 다루거나 언급하지 않고 다른 화제로 주의를 돌리는 등 회피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 핑계 또는 다른 사정으로 돌려서 표현 • 슈퍼비전 받을 때에는 인식을 못해서 표현 못함 • 슈퍼비전을 받지 않음 • 모른다고 함

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 번째 영역은 '왜곡'으로 모두 4개의 방식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8.8%를 차지하였다. 이는 어떤 내용에 대해 적절한 것으로 보이도록 축어록을 조작 또는 수정,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추측하여 표현하는 방식 또한 중요한 비개방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네 번째 영역은 '우회'의 영역으로 모두 3개의 방식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6.9%를 차지하였다. 이는 상담수련생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우회적, 수동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양식도 비개방 방식으로 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영역은 '회피'로 모두 4개 방식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반응의 4.1%를 차지하였다. 이는 어떤 내용에 대해 다루거나 언급하지 않고 다른 화제로 주의를 돌리거나 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예 수퍼비전을 받지 않는 등 회피하는 양식으로 상담수련생들이 비개방 방식을 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개방 정보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비개방 정보의 개방 대상

본 연구에서 면접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면접 후 수퍼비전에서 전체적인 개방정도를 10점 리커트 척도(1:전혀 개방하지 않는다 ~ 10:완전히 개방한다)로 평가하도록 했을 때, 초급 경력의 수련생들은 평균 7.08($SD=1.02$), 중급은 평균 7.25($SD=0.75$), 상급은 평균 6.75($SD=1.48$) 정도로 자신들의 전체적인 개방수준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이 비개방한다고 보고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가' 하는 비개방 내용의 중요도 정도에 대해 초급 경력의 수련생들은 평균 6.92($SD=2.01$), 중급은 평균 6.67($SD=2.42$), 상급은 평균 8.25($SD=1.26$) 정도로 중요하다고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급 경력의 수련생들이 자신이 보고한 비개방 내용에 대해 더욱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면접 후 '수퍼바이저에게 개방하지 않는 정보나 자료를 누구에게 개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상담수련생들(18명 중 16명)이 상담 동료에게 개방한다고 하였으며 이들 중 4명은 '상담 동료'와 '교육분석자'에 중복 응답하였고, 1명은 '상담 동료'와 '타 분야의 친구'에 중복 응답하였다. 누구에게도 개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개방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욕구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또래 상담수련생에게 지지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의식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비개방에 대하여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 심층 면접을 통하여 개인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들을 각각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한 질적 분석으로 추출, 분류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퍼바이저 및 수퍼비전에 대한 반응이 주된 비개방 내용으로,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의식이 주된 이유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수퍼바이저에 대한 의식 및 수퍼비전 관계가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퍼비전은 관계형성 기술이나 공감, 질문 등 미시적 상담기술을 학습하는 데 치중하여 왔으며(류진혜, 1999; 이윤주, 2001) 상담 사례에 대한 내담자 문제파악, 상담 과정에 초점

이 맞춰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상담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 비개방 내용들은 슈퍼바이저, 슈퍼비전, 슈퍼비전 과정, 상담과정, 상담수련생 자신, 내담자에 대한 상담수련생의 지각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Wampold와 Holloway (1997)가 상담수퍼비전 연구 모델에서 제시한 슈퍼비전 연구를 위한 전반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슈퍼비전이 내담자 이해와 상담기술에 초점을 두는 접근에서 벗어나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영역들이 탐색되고 다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상담수련생들의 비개방 내용들은 ‘슈퍼바이저 및 슈퍼비전에 대한 반응’,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슈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의식’, ‘상담진행 및 개입’, ‘상담수련생-내담자 감정 및 개인적 이슈’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개방 영역은 ‘슈퍼바이저 및 슈퍼비전에 대한 반응’으로 Ladany등(1996), Yourman과 Farber (1996)의 연구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바와 일치한다. 특히 슈퍼바이저에 대한 불편함 불만족감 등 부정적 감정이나 상이한 의견 등에 대한 비개방이 평행적 과정(pararell process)을 통해 내담자와 상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Friedlander, Siegel, & Brenock, 1989; McNeil & Worthen, 1989)들을 고려할 때, 내담자를 보호하는 슈퍼비전의 일차적 목적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슈퍼바이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비개방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므로, 작업동맹의 약화 및 상담자 교육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이유들은 슈퍼비전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예상’, ‘평가에 대한 염려’,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개방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 ‘상담수련생으로서 부족감 인식’, ‘슈퍼바이저의 의도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의 5가지 영역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이는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 있어서 슈퍼바이저와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로, Ladany등(1996) 연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서’의 비개방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달리, ‘슈퍼비전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예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우리나라 상담수련생들이 서구의 상담수련생들보다 슈퍼바이저와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관계에서 더 불안해하며 위축되어 권위적인 상에 대하여 복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Shim(2002)의 논의와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슈퍼바이저의 부정적 반응이나 갈등에 대한 두려움 또는 상하관계나 힘의 차이에 대한 인식, 평가에 대한 염려가 개방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불안에 대한 방어로서, 상담수련생은 슈퍼바이저와 관계에서 실수와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데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며, 상담수련생은 불안 감소 또는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험들을 개방하지 않게 된다.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슈퍼바이저와 상담수련생의 관계가 교수-학생, 상급자-직원, 선배-후배 등의 이중관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슈퍼바이저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함으로써 인하여 개방은 더 어려워진다. 더욱이 수평적인 대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위-아래’ 식의 상하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많은 한국인 문화의 관계 특성에 대한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방식들은 ‘은폐’, ‘축소’, ‘왜곡’, ‘우회’, ‘회피’의 5가지로 분류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비개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피면접자 모두 그리고 전체 반응의 반 이상이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은폐’의 방식을 채택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피면접자들은 자신의 비개방 내용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지각하였지만, 슈퍼비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은폐’ 하며, 대부분이 슈퍼비전 밖에서 상담 동료들에게 개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수련생들이 자신을 이해해 줄 동료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지, 공감이나 조언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반응의 예상, 평가에 대한 염려, 인정 욕구, 불안 등으로 슈퍼바이저에게 비개방한다는 사실은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요인이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슈퍼바이저와 1:1 관계를 과도하게 어려워하는 상담수련생들의 경우에는 집단슈퍼비전이나 또래슈퍼비전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초급, 중급의 피면접자들은 슈퍼비전에서 무엇을 개방해야 하는지, 슈퍼바이저와 상담수련생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나타내었다. 슈퍼비전 관계는 계약관계로 슈퍼비전의 진행 방식이나 슈퍼비전을 위한 준비, 개방의 필요성, 수련생의 역할 등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개방의 촉진과 체계적인 슈퍼비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 교육에서 슈퍼바이저의 이중관계는 상담수련생들에게 관계의 갈등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더욱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며 결국 개방 수준을 낮추고, 슈퍼비전의 효율성도 낮추는 결과를 야기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슈퍼비전은 다분히 자문(consultation) 형식을 띄는 경향이 많으며, 일회적인 경우도 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천적 지식은 전문성이 높은 슈퍼바이저와의 도제적 관계를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요구되며, 또한 작업동맹이 잘 맺어진 관계에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슈퍼비전이 이루어질 때 전문적 자질과 함께 개인적 ‘자각’과 ‘점검’을 통한 상담자로서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전인적인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슈퍼비전은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슈퍼비전은 상담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과정’으로서 상담수련생과 슈퍼바이저와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 결정적인 요인이자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보다 임상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상담수련생의 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자각과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슈퍼비전 과정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에 대한 국내 최초의 경험적 연구로서 서구와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국내 슈퍼비전 상황에서 상담수련생의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슈퍼비전에서 개방하지 않는 내적 경험에 대한 내용과 이유 및 방식을 확인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으며 추후 연구를 위한 틀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적 연구로는 확인할 수 없는 비개방에 대한 정보들을 질적분석을 통해 좀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상담수련생 자신이 슈퍼비전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맥락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수련생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슈퍼비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등 슈퍼비전의 효율적 운영과 개입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시적 기술향상과 사례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담수퍼비전의 현실에서 상담수련생과 수퍼바이저 관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상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담수련생들이 수퍼비전에서 비개방하는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초급, 중급, 상급 경력의 상담수련생 18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했더라면 또 다른 비개방 요소들이 추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면접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표집절차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경험을 언급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수퍼바이저 변인 통제를 위해 상담전문가 4년 이상인 수퍼바이저에게 개인수퍼비전을 5회 이상 받은 상담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과 오염변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질적 분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성, 평정자들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인의 평정자와 함께 감수자 2인, 최종감수자 1인을 포함한 6명의 합의 및 논의과정을 반복하고, 감수과정을 통해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는 비개방에 대한 경험을 면접을 통해 회상하는 방식으로 추출해내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수퍼비전 회기 후 바로 조사하는 것이 더 생생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지속적인 회기에 걸쳐서 분석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한 확인도 중요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수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4, 19-53.
- 박재황, 김계현, 노안영, 김진숙 (1996). 청소년 상담 수퍼비전.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방기연 (2003). 상담 수퍼비전. 서울: 학지사.
- 손승희 (2003). 집단수퍼비전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학생생활연구*, 25, 43-67.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성경 외 (2002). 청소년상담 수퍼비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운주 (2001). 상담자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서울대학교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 왕은자 (2001). 소집단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서울대학교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림 외 (2003). 수퍼바이저와 수련생을 위한 수퍼비전 워크샷.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동계 학술연수.
- Alonso A., & Rutan, J. S. (1988) Shame and guilt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sychotherapy*, 25, 576-581.
- Arkowitz, S. W. (1990). Perfectionism in the supervisee. *Psychoanalysis and Psychotherapy*, 8, 51-68.
- Armenieux L. F. (2000). *Level of supervisee disclosure in the clinical supervision of counselors-in-trai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boro.
- Beyer, T. J. (1999). *Self-monitoring, supervisor self*

- disclosure, and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in counseling superv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Campbell, J. M. (2000). *Becoming an effective supervisor: A workbook for Counselors and Psychologists.*
- Friedlander, M. L., Siegel, S. M., & Brenock, K. (1989). Parallel process in counseling and supervision: A case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49-157.
- Gill S. (2000). *Narcissistic vulnerability in supervisee: Ego ideals, self-exposure, and narcissistic character defences.*
- Glickauf-Hughes, C. (1994). Characterological resistances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sychotherapy, 31*, 58-65.
- Hess, S. A. (1999). *Interns' critical incidents of nondisclosure and reluctant disclosure in supervision: A qualitative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572.
- Holloway, E. L. (1995). *Clinical supervision: A systems approach.* Newbery Park, CA: Sage
- Jarmon H. (1990). The supervisory experience : An object relations perspective. *Psychotherapy, 27*.
- Kaiser, T. L. (1997). *Supervisory relationships: Exploring the human element.*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Ladany, N., & Friedlander, M. L.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supervisee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4*, 220-231.
- Ladany, N., Hill, C. E., Corbett, M. M., & Nutt, E. A., (1996). Nature, extent, and importance of what psychotherapy trainees do not disclose to their supervis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0-24.
- Ladany, N., & Lehrman-Waterman, D. E. (1999). The content and frequency of supervisor self-disclos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supervisor style and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 143-151.
- Ladany, N., & Melincoff, D. S. (1999). The nature of counselor supervisor nondisclosur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 161-169.
- Liddle, B. (1986). Resistance in supervision: A response to perceived threat.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6*, 117-127.
- Shim, S. Sangkwon (2002). Cultural landscapes of pastoral counseling in Asia: The case of Korea with a supervisory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5*, 77-97.
- Wampold. B. E., & Holloway E. L.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Methodology, design, and evalua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research.* John Wiley & Sons, Inc.
- Webb, A., & Wheeler, S. (1998). How honest do counsellors dare to be i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An exploratory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Cambridge, 26*, 509-524.
- Worthington, E. L., Jr. (1984). Empirical investigation of supervision of counselors as they gain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63-75.
- Yamartino, K. C. (1998). *Left unsaid: Nondisclosure in*

- supervisory relationship from the supervisee's perspec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Yerushalmi, H. (1992). On the concealment of the interpersonal therapeutic reality in the course of supervision. *Psychotherapy, 29*, 438-446.
- Yourman, D. B. (2000). *Internalized shame, representation of the supervisory process, and trainee perceptions of nondisclosure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Yourman, D. B., & Farber, B. A. (1996). Nondisclosure and distor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sychotherapy, 33*, 567-575.
- 원 고 접 수 일 : 2004. 11. 1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 13
게 재 결 정 일 : 2005. 2. 3

K C I

Supervisees' Nondisclosure in Counseling Supervision

Seung-Hee Sohn

Chung-Ang University

Counseling supervision, which aiming at the protection of clients and the development of supervisees' specialty, assumes supervisees' disclosure of information but, in reality, supervisee intentionally keep some of their experiences from the supervisor. Thus, it is important to study supervisees' nondisclosure in that it may do harm to the clients, impede the improvement of supervisees' special skills and their awareness, and lower the efficiency of supervision. This study purposed to identify and classify the contents, the reasons and the manners of nondisclosure that supervisees did not disclose intentionally in counseling supervision. Data was collected from 6 supervisees with the beginning experienced, 6 with the intermediate experienced and 6 with the highly experienced, so a total of 18 supervisees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from which 307 content responses, 349 reason responses and 319 manner responses were extracted. These responses were classified into 52 contents, 47 reasons and 19 manners by the agreement among judges and overse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52 factors abstracted as contents that supervisees do not disclose were classified into 5 domains: (1) responses to supervisor and supervision; (2) responses to supervisor's feedback; (3) perception on supervisor's evaluation; (4) counseling process and intervention; and (5) counselor-client emotion and personal issue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most undisclosed domain was 'responses to supervisor and supervision,' which suggests that counseling supervisees in Korea are very reluctant to disclose their feelings for or responses to the supervisor or their experiences in supervision. Second, 47 factors abstracted as reasons that supervisees do not disclose were classified into 5 domains: (1) expectation of negative impact on supervision relationship; (2) concerns over evaluation; (3) lack of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disclosure and doubt about the effect of disclosure; (4) sense of inadequacy as a counselor; and (5) trust in supervisor's intention and ability.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primary reason for nondisclosure is to be conscious of the supervisor expecting a negative impact on supervision relationship. Third, 19 factors abstracted as manners that supervisees do not disclose were classified into 5 domains: (1) concealment; (2) diminution; (3) distortion; (4) roundabout; and (5) avoidance. All interviewed supervisees and over half of their responses were found to adopt concealment. Through an empirical research on supervisees' nondisclosure in the process of supervis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the reasons and the manners of nondisclosure in a systematic wa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supervisees to reflect, understand and change themselves through explaining nondisclosure, and provide supervisors with specific substantia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supervisees and develop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supervis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Key Words : supervision, counselor education, supervisee, supervisor, disclosure, nondisclosure